

구례군, 매천도서관 이전 개관식 개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26㎡ 규모...장서 3만9천권 갖춰 60억원 투입... 동아리실·북카페 등 갖춘 복합문화공간 거듭

구례군이 학습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매천도서관을 이전 개관했다.

18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정석호 전남도립도서관장, 구례군 기관사 회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천도서관 이전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건립 경과보고,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군은 서시천 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구 매천도서관을 200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건물 노후로 인하여 2017년 신축을 결정하고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구례읍 중심지역으로 옮겼다.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26㎡ 규모로 작년 12월 준공됐다.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됐으며 3만9천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18일 김순호 구례군수와 이현창 도의원 등이 매천도서관 내부를 관람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내부 이전작업을 추진해 4월 완료했다. 도서 자가대출 및 반납, 예약대출, 추천도서검색 등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내 공간 인테리어와 장애인 시설이용 안내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도서관 1층은 종합자료실로 2층까

지 개방감 있는 북층구조로 조성했다. 자료열람과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148석의 열람좌석을 만들었다.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 독서토론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는 동아리실,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했

다. 도서관 2층은 종합자료실과 특별 프로그램실로 구성해 자료열람과 더불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군은 매천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날 행사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혁명의 시대에 새롭게 건립된 매천도서관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욱 풍성한 문화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천도서관의 명칭은 구한말 문장가이자 우곡지사로 구례에서 활동했던 매천 황현의 호를 빌렸다. 매천 황현은 중앙정계에서 벗어나 구례에서 활동하면서도 방대한 독서를 통해 한말 비사(史)인 '매천야록'을 통찰력 있게 집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담빛문화지구 준공 기념 식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양군은 지난 20일 담빛문화지구 준공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해 시공사인 양우건설(주)의 고문철 사장과 시행사인 담양대숲마루(주) 김승태 대표 등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담빛문화지구 내 고가제 소공원에 담빛문화지구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수를 식재하였다.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대에 약 127만㎡ 규모로 조성된 담빛문화지구는 2015년 양우건설(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사업을 준공했다.

현재 단지 내에 680세대의 양우 현재 612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772세대의 단독주택 부지에 163세대가 입주 및 건축 중으로 단지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담빛문화지구 조성으로 174억 원의 지방세 신규 세원이 증대되어 2020년 지방세 결산액이 2019년 대비 37.2%가 증가하였으며,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 4월 기준 인구수가 46,624명으로 작년보다 344명이 증가했다.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감과 동시에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덕 새꿈도시 조성사업 등 8천여 세대 규모의 크고 작은 민자유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화순경찰서·여성친화도시 주민 참여단과 함께 31곳 점검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

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

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주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다. 화순농협 하나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

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도로명주소 개념 및 부여원리 등 올바른 사용법 숙지

나주시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과학적 부여 원리를 영상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우리 집, 우리학교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는 등 초등학교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위급상황, 물품 배송, 초행길 찾기 등 위치 안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바른 사용법 숙지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주 영강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사용법 교육을 첫 실시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명·역사·주민의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명칭을 붙이고 주택·건물에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 표기하는 주소 체계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해도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폭 40m·8차로 이상), 로(12~40m·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분류한다.

도시시작점에서 20M 간격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에 해당하는 건물번호를 규칙적으로 매긴다.

버스정류장, 자전거길, 지진옥외대피소 등 주소가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은 국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자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적용되



므로 건축물대장·건물 등기부와 같은 건물의 표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토지대장·토지 등기부에는 지번을 사용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우리 지역 초등학교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전남 최초 업무추진비 등 제로페이 결제 오늘부터 도입키로

곡성군이 20일부터 전남 최초로 기관 회계 지출 시스템에 기업 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이 기업 제로페이를 도입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업 제로페이는 제로페이의 법인 전용 서비스로 업무추진비나 특근대식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도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등을 기업 제로페이로 결제해 지역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다. 또한 기업 제로페이는 NH모바일

G 앱을 통한 직불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도 편리하고 자금관리나 회계 관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곡성군은 시행에 앞서 지난 13일 각 부서의 지출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일부터 기업제로페이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기업제로페이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상권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